

Digital & IT

휴대전화의 진화

# 손안의 PC '유비쿼터스 시대' 활짝

휴대전화의 진화가 있다. 최근 아이폰이나 옴니아폰 등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속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은 물론 길찾기, 보험료·기부금 결제 등 '내 손안의 유비쿼터스' 세상이 열리고 있다.

◇휴대전화 속 인터넷. 이제 무료로 쓰세요 = 28일 발매될 애플의 아이폰의 잠정 중 하나는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는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폰은 무선랜인 와이파이(Wi-Fi)를 탑재해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버튼을 잘못 눌러 황급히 종료 버튼을 누를 일이 없어진 것이다.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는 수출용에서만 탑재했던 와이파이 기능을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판매용에

## 길찾기는 기본, 보험료·기부금 결제까지 휴대전화 속 인터넷 이젠 공짜 사용 가능

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은 탑재된 GPS를 이용해 지도상의 자신의 위치, 휴대폰 분실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굳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지 않아도 GPS 기능으로 걸어다니며 쉽게 맛집을 찾을 수 있다.

◇기부금·당비도 휴대전화로 결제 가능 = 연말이 가까워지며 기부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천사사랑 나눔'은 휴대전화에서 '\* \* 1004'를 입력하고 네이트 버튼을 누르면 접속할 수 있다. OK캐쉬백 등의 포인트와 함께 1천원~2만원까지 소액 현금을 후원할 수 있다. 또 휴대

전화에서 '539'번을 누르고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뒤 국회의원 지정 후원, 선관위 기탁 등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고 소득공제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당비 납부는 '629'번과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르면 민주당의 당비납부 안내 화면으로 연결되고, 10만원까지 납부액을 정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실시간 교통정보·모바일뱅킹은 기본 = LG텔레콤은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의 아이폰을 휴대전화 화면에 배치해 원클릭으로 접속할 수 있는 'OZ위젯' 서비스의 콘텐츠를 보강했다. ▲서울 및 광역시 등의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교통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메일, 뉴스, 맛집, 블로그, 만화 등의 포털 메뉴를 자신의 필요에 따

라 배치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포털 기능별 위젯 등 40여 개의 콘텐츠가 보강됐다. 올해 안에 모바일 뱅킹, 택배위치 확인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휴대전화를 무선인터넷 접속장치로도 활용한다. LG텔레콤은 올해 안에 윈도 모바일 6.5버전을 탑재한 스마트폰 '오즈 옴니아'를 출시하면서 휴대전화를 무선인터넷 모뎀처럼 사용할 수 있는 '테더링(Tethering)' 서비스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테더링이란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무선인터넷 접속 장치로 활용해 노트북이나 MP3, PDP 등 다른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와이브로 모뎀이나 초고속이동통신 모뎀 없이 오즈옴니아폰만 있으면 와이파이나 근거리 무선통신(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우체국 보험 광주회관 개관

보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보험회관이 광주에 건립됐다. <사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6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우체국 보험 광주회관 개관식을 가진다. 연면적 3만1천456㎡의 크기에 지상 16층, 지하 3층 규모로, 지열·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한 '그린 빌딩'이다. 우체국 관련 업무공간과 보험아카데미 교육시설은 물론 뮤지컬과 연극,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문화센터, 스포츠시설, 대강당(다목적홀)을 갖췄다. 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은 "광주 보험회관은 우체국보험직접금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고객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헬스, 공연, 여학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춘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위젯기자 jrwi@kwangju.co.kr

## 두부·우유 등 생필품값 주간 단위 인터넷 공개

동네에서 판매되는 두부나 우유, 라면, 기저귀 등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주간 단위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매주 생필품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생필품의 가격을 인터넷에 주간 단위로 공개하는 가격정보 시스템이 다음달 21일부터 가동된다. 이번에는 우선 서울 지역 10개 점포의 20개 품목 가격이 공개되는데 내년에는 전국 135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80개 품목의 가격을 매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삼성광주전자 최진균 대표 자진 사퇴

### 지젤 냉장고 폭발사고 책임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삼성전자의 지젤 냉장고 폭발 사고와 관련, 최진균(60)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부장(부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최 부부장은 삼성광주전자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24일 삼성광주전자에 따르면 냉장고 등 생활가전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는 최 부사장은 지난달 있었던 냉장고 파열 사고와 이에 따른 리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폭발 사고를 낸 냉장고 모델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생산된 것으로, 최 부사장은 지난 2006년 1월 생활가전 사업부장으로 옮겨왔다.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게 삼성측 설명이다.

대신, 가전사업은 정기인사 때까지 최진성 삼성전자 완제품(DMC) 사장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삼성광주전자측은 또 "정기인사 때까지 최 사장이 맡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왕짜증' ARS 대기시간 줄어든다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에서 광고성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상담원과도 쉽게 연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ARS 이용과 관련해 제기된 불만사항들을 종합 분석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5일부터 ARS 제공 기관과 기업이 이를 자율 준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ARS 단계마다 상담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원 연결메뉴를 두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ARS 운용기관은 적정 규모의 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시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광고성 정보제공 시간을 최소화하고 활용 빈도가 높은 정보를 초기단계에 배치하도록 했다.

상담원 연결을 위한 대기시간이 30초를 넘어갈 경우 상담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하도록 하는 콜백(Call Back) 서비스도 도입된다.

## 30초이상 기다리면 상담원이 전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마련

ARS는 현재 2단계 기업과 공공 기관 콜센터에서 업무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4만7천여 전화회선이 ARS에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globehearing.com

본점 (062) 227-9940

충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840

목포점 (061) 262-8200

혁신점 (063) 851-2422

퍼져라 푸른빛 물결!

KOS 주식회사 한백

02-227-9940